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겠다는 염원”

‘2023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시조·소설 부문 접수 전국서 1345편... 시 12·시조 10명, 소설 8편 ‘본심’

올해도 제주로 향한 문학의 열기는 뜨거웠다. 2023 한라일보 신춘문예 작품 공모 결과 제주를 비롯 전국 각지에서 1300여편이 넘는 작품이 도착했다.

한라일보사가 지난 14일까지 시, 시조, 단편소설 3개 부문에 걸쳐 2023 신춘문예 공모를 마감한 결과 364명이 총 1345편을 응모했다. 부문별로는 시 176명 902편, 시조 60명 303편, 소설 128명 140편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응모작 수는 다소 줄었다.

지역별로는 제주는 물론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경북,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등 국내외에서 참여해 한라일보 신춘문예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는 10대에서 90대까지 다

양하게 분포했는데, 30~40대와 50대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 응모작에 대한 예심은 지난 20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심사는 시 부문 강덕환·김지연 시인, 시조 부문 한희정·김연미 시인, 소설 부문 문혜영 소설가와 고명철 문학평론가(광운대 교수)가 맡았다.

시 부문 예심 심사위원들은 “시질이 어렵다 보니, 시 역시 분위기가 무거웠다. 아마도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염원이 깃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꼭꼭 눌러쓴 듯한 따뜻한 감수성의 시가 있는 반면, 현란한 장식이 난무하는 시편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며 “그들 모두 시에 대한 열정을 뜨겁게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한라일보 대회의실에서 2023 한라일보 신춘문예 시, 시조, 단편소설 부문 응모작에 대한 예심이 진행됐다.

시조 부문 심사위원들은 “시조의 기본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상징과 함축이 부족한 작품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신인으로서의 신선감과 패기 그리고 인식의 깊이를 우선했다”고 전했다.

소설 부문 심사위원들은 “응모작들 대부분이 최근 경제적 일상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가령 정규직/비정규직 관련 삶의 난경, 주택 문제 등과 최

근 코로나19를 경험한 일상, 포스트코로나에 직면한 삶을 다루고 있다”며 “그 외에 고령화되는 현실에서 겪는 치매와 소외 등도 자주 다뤄지고 있다”고 했다.

예심 결과 시 12명, 시조 10명의 작품과 소설 8편이 본심으로 향했다. 본심을 거쳐 선정된 부문별 당선작은 2023년 한라일보 신년호에 실린다.

오은지기자

오늘날의 ‘집’, 그 의미를 묻다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 배효정 개인전 ‘TUH:터’ 올해 준비한 마지막 전시

영상매체와 퍼포먼스를 결합해 제주 이주작가로서의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탐구해 온 배효정 작가는 개인전 ‘TUH:터’에서 가속화되는 개발과 이주로 인한 현대인들의 고향 상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경험을 자전적인 요소로 시각화해 오늘날 ‘집’의 의미를 되묻는다.

전시장에서 배 작가가 ‘집’을 주제로 다룬 3점의 영상 설치 작업 ‘답십리 그 집’, ‘해녀지망생의 집터’, ‘나의 살던 바닷은’을 만날 수 있다.

‘답십리 그 집’은 작가가 20년 전 거주했던 서울 답십리의 집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기록한 영상이

다. 개발로 인해 사라진 집에 대한 나와 타인의 기억, 기억 속 집과 현실 간의 간극을 다룬다.

‘해녀지망생의 집터’는 작가의 제주 이주 경험을 담은 작업으로 ‘집’을 둘러싼 인간의 욕망, 꿈과 좌절을 허물어진 집의 잔해와 파편적 기억, 수중을 부유하는 자신의 모습과 중첩하여 표현한다.

‘나의 살던 바닷은’은 제주 해녀들의 이야기를 수집한 후 수중 퍼포먼스와 텍스트로 재해석했다. 이는 제주 해녀들에게 바치는 찬가인 동시에 한 장소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가 지난 23일부터 올해 마지막 전시로 선보이고 있는 2021제주특별자치도미술대전 대상 수상 작가 초대전 배효정 개인전은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오은지기자



배효정 작 '해녀지망생의 집터'.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가상현실로 전한 감동

포도뮤지엄 VR전시 개관

제주 포도뮤지엄(PODO museum)이 가상현실(VR) 전시관을 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인기 전시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YET, WITH LOVE)’를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포도뮤지엄은 “제주도라는 물리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가상현실 전시관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 신체·경제적 어려움으로 뮤지엄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문화 예술을 차별 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됐다.

가상현실 전시관은 포도뮤지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현장에서 오는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PC 버전으로만 제공한다.

한편 포도뮤지엄이 이번 가상현실 전시관을 통해 선보이는 ‘그

려나 우리가 사랑으로’는 이주자와 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우리가 갖춰야 할 포용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작품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우고 룬디노베, 요코 오노, 리나 칼라트, 알프레도&이자벨 아퀼리안 등 해외 인기 작가들을 포함해 이배경, 강동주, 정연두 등 국내 유명 작가들과도 협업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문학학교 문학의 밤

제주문학학교(운영위원장 박재형)는 올해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문학의 밤 행사를 연다. ‘잠시 네 이름쯤에서’란 이름을 단 자작나무숲과 함께하는 콘서트로, 이달 29일 오후 7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펼쳐진다.

자작나무 숲지기로 불리는 우상 임씨가 진행하는 이날 콘서트는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피아노 등의 다양한 매력을 살린 트리오와 아코디언 등의 솔로 연주로 클래식에서 대중가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음악으로 만나는 그림책 공연과 낭송도 곁들여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문학학교의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사전에 참가 신청을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음협 ‘송년음악회’ 오는 27일 아트센터서

(사)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회(지회장 오능희)가 K-제주음악제 송년음악회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한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ALL AGES’란 이름을 달고 미래의 예술인들부터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 그리고 20년 전 후학 양성과 더불어 왕성한 활동을 했던 전직 교수까지 무대에 올라

화합의 공연으로 꾸려진다.

클럽 노래자자 춤추자 합창단이 문을 여는 이날 공연 무대는 관객과 함께 전 출연진이 피아니스트 신항이의 반주로 가요 ‘만남’을 부르며 막을 내린다.

제주음협은 “코로나19 이후로 클래식 전문적인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도민들에게 콜라보를 통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무대로 이해하고 편하게 즐겨 들을 수 있는 곡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연은 이달 27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전석 초대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송승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노송희 회원일동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시게이트볼협회
회장 강춘근 외 회원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6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